

일상에 스며들어 보물이 된 대나무

비움박물관 완~8월 17일 여름 기획전 '대나무 민예품 전'

통발·석작·소쿠리·채반... 생활용품 700여점 선 보여

한여름 대나무 평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다. 여기에 시원한 수박이나 참외가 포도가 곁들여지면 더 없이 좋았다. 무더위를 날리는 데는 죽부인 만한 게 없고, 보리밥이 쫄까 대청에 매달아 놓은 대나무 밥바구니, 시원함 바람을 보내주던 대나무살 부채 등 대나무는 우리와 함께였다.

의식주를 아우르는 우리 일상에 스며 있던 대나무 민예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전남여고 맞은편에 자리한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이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 여름 기획전으로 '대나무 민예품 전'을 진행한다. '보물이 된 대나무-팍과 눈물,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대나무

로 만든 각종 민예품 700여점이 선보인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비움 박물관은 이관장이 40년간 모은 2만여점의 민속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1년에 4차례 정도 계절에 맞는 기획전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고기를 잡던 통발과 낚시대, 석작, 도시락, 소쿠리, 채반, 밥, 부채 등을 만날 수 있으며 대나무 민예품이 집중전시되는 3층에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팍상 등도 전시해두었다.

이영화 관장은 "대나무 용품은 우리생활과 밀접한 물건들로 재미있는 전시작들도 많다"며 "일회용품만 사용하는 현대인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오랫동안 이용했던 물품들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 첫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지역의 시낭송가들이 아름다운 시를 낭송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다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15일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2-666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5일부터 8월17일까지 비움박물관에서 열리는 '대나무 민예품 전' 전시 모습.

광주문화읽기

내가 처음 무대에 서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대학에서도 전공과는 무관하게 연극 동아리에 몸을 담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일반 극단 단원활동까지 하다가 결국 극단을 창단하게 되고 지금까지 연극무대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셀 수 없는 작품들을 만나왔고 떠나보냈다.

내가 몸담게 된 극단(물론 당시 광주의 연극 대부분이 그러 했지만)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번역극 중심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예기치 않았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저작권'의 강화, 바로 그것이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으나 모든 희곡들에 대한 사용권을 득해야 하고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은 작품 제작에 적잖은 부담을 안겨다 줄 수밖에 없었고 이는 일시적으로 광주 연극 전반의 침체기를 불러



오성완 연극연출가 극단 푸른연극마을 대표

자 누군가가 술자리에 내게 슬쩍 말을 건넸다. "불 태워버리시다." 그랬다. 그로부터 이틀 뒤에 나타난 연극 '사평역'은 원작을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남은 잔재들로만 구성됐고, 열흘간의 짧은 작업 과정 속엔 작업자 모두가 스스로 감탄하면서 무대화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공연되고 있는 우리 극단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는 올 12월, 다시 '사평역'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무대를 향한 열정을 그리워하며

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 침체기를 겪고 난 광주 연극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창작극들의 등장이었다. 물론 꾸준히 창작극만을 고집해 온 극단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기존 희곡 사용에 대한 제한적 요소가 결국은 독자적 연극성 담보를 불러오게 되었고 스스로 창작해 무대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방안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우리 극단 또한 절반 이상의 작품들을 가능한 한 자체 창작이나 기존 국내 희곡을 고집해 왔다. 그러나 자체 창작극의 경우 많은 인고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완성도를 획득해 내는데 많은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또한 창작극의 경우,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다. 어찌되었든 '저작권 강화' (반드시 이러한 현상 때문만은 아니겠지만)가 불러 온 창작극의 흐름은 뜻하지 않는 작품을 탄생시키기도 했다. 연극 '사평역'이 그렇다.

1983년 신춘문예에 당선된 곽재구 시인의 시 '사평역에서'와 임철우님의 단편소설 '사평역'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이 처음 희곡으로 나타났을 때는 희곡을 읽는 데만 3시간이 걸릴 정도였고 도대체 왜 이 작품이 무대화되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레제드라마(읽기 위한 희곡)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공연을 2주일 앞두고 작업

2018년 오늘, 나는 다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한다. 그러나 갈수록 침체되어가는 광주 연극의 전반적인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 작년 보다 그렇고 2년 전 보다 더더욱 그렇다. 무엇일까? 이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문화중심 도시, 문화수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프리마켓페스티벌... 전반의 흐름은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예고하는 듯한데, 유독 연극만 또다시 깊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더구나 미래 또한 그리 밝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욱더 가슴 아프게 한다. 관객이 없다. 공연도 없다. 연극인도 줄어들고 있고 무대도 비좁아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그 돌파구가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나... 또 다른 '저작권 강화'와도 같은 극약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

아니다. '불태워버리시다.'를 외치며 무대를 향한 열정을 드러냈던 그 어떤 배우의 모습처럼 다시 무모한 '열정'만 이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일 수밖에 없음을 믿으며 또 다른 우리 극단의 창작극 '부용산' 연습실로 향한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장애인미술협회 '시간의 빛' 전

24일까지 시립미술관 라운지



박인희 작 '꽃보다 사랑'

(사)광주장애인미술협회(회장 전자광)가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과 공동으로 본관 로비 아트라운지에서 '시간의 빛'전을 오는 24일까지 개최한다.

1992년 창립된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의 확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장애인 미술 지망생들의 진로개발과 창작을 통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매년 정기작가 전시, 기획전 등을 열고 있으며 교육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성미, 김선환, 김중훈, 이성기, 이정자, 이항희 등 모두 27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예·한국화·서양화·금속공예·목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막식은 오는 19일 오후 5시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청년기획사 등에게 공간을 빌려주는 아트라운지를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146.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청년시대'

20일 광주문화예회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16회 정기연주회 '청년시대'가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 전공생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자 매년 마련하고 있는 협연 공연의 하나다. 지난 5월 전국 국악과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악, 관악, 판소리, 가야금 병창 부문을 뽑기 위해 진행된 오디션 통해 이수미씨 등 총 8명이 뽑혔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최일록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았으며 광주시립창극단의 이정주가 사회자로 출연한다.

이수미(전남대 국악과)의 해금연주곡 '상생'은 국악 작곡가 조원행의 곡으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최인화(전남대 국악과)의 가야금협주곡 '아랑의 꿈'은 경상도 민요 밀양아리랑을 편곡한 곡으로 다양한 주법과 농현이 특징이다.

고혜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과)의 가야금 병창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 모습.

'적벽가' 중 '화룡'은 판소리 열두마당 중 하나로 웅장한 우주의 멋과 장수들의 박진감 넘치는 기상을 엿볼 수 있다. 박지영(복원대 국악과)의 태평소 협주곡 '호적풍류'는 기악반주 부분을 중점적으로 편곡한 곡이다.

인종영, 김제훈, 안다인, 나세리는 흥겨운 가락이 특징인 타악협주곡 '신모듬 3악장'을 팽과리, 장고, 징, 북 등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전석 1만원(학생 50%). 문의 062-613-824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여름호 출간

인터넷신문 문화통(대표 지형원)이 발행하는 문화전문 계간지 '문화통plus' 여름호(통권 27호·사진)가 출간됐다.

'통 그 섬에 가고 싶다' 코너에서는 고흥 연흥도를 찾았다. 전국 유일의 '섬 in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는 연흥도는 미술관과 함께 여러 조형물이 어우러져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의 마을 1박2일' 시리즈 특집에서는 해남읍 연동을 방문했다. 연동은 고산 윤선도, 공재 윤두서 등의 인물을 배출해 한국 중기문화의 모델로 여겨지는 곳이다. 특히 500년 역사의 '해남 윤씨 종가 녹우당'으로 유명하다.

또 전라도문화수호회 시리즈 17번째 순서로 '진도 임하면 갯섬의 비밀'을 다뤘으며 '남도물 빛낸 여성'이 변호 주인공은 신숙주의 제수이자 신말주의 부인으로 '화조도'와 보물 제 728호인 '설씨부인 권선문'을 남긴



의학박사 이야기를 다뤘으며 아프리카인 아트 김광수 대표가 운영하는 공동화랑을 방문했다. 문의 062-226-551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순창 설씨 부인을 조명했다. '이작가를 주목하라'에서는 서양화가 이명숙씨를 만났으며 '통 이사람'에서는 팬 플루트 하나 들고 세상을 떠도는 팬 플루트 연주자 조우상씨를 만났다. 이밖에 '바른 성명학 강의' 저자 정연태

서창한옥문화관 내일 '여름맞이 단오 체험행사'

서창한옥문화관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여름맞이 단오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울림으로 5월5일단오는 수릿날, 중오 절이라고도 한다.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해 큰 명절로 여겼고 모내기 끝난 후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과 여름을 잘 보내기 위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세시풍속이 이루어졌다.

가족단위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조상들이 더위를 쫓기 위해 건강을 기원하며 만들어 먹던 '수리취떡 만들기', '시원한 창포물 머리감기', '단오부채 만들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족은 서창한옥문화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서구문화센터 홈페이지(www.ymcakangju.or.kr)를 참조. 문의 062-373-136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내 집 같은 편안함!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건강한 우리 음식 한정식
30년 전통의 한정식, 평일 주중 오찬 정식

알찬 행사를 위한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영상 시설이 갖춰진 중·소규모의 연회장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금수장호텔
GEUMSOOJANG HOTEL